

올해 1,725億 엔 投資 계획

日本, 第 8 次 漁港 정비計劃 2 次 年度 맞아

명년도는 제8차 어항정비 계획의 제2차년도로써 수축사업, 개수사업, 국부개량사업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1,725억엔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2차년도인 금년말 진척률은 29%가 될 것이다.

개항, 총 882개항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8차계획에 대한 진척률은 금년도 말로서 29.7%의 진척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1. 수축사업

어항정비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업으로서 어항법 제17조에 규정한 어항정비계획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제8차 정비계획에서는 1개 어항당 계획기간내 총 사업비가 12억엔이 넘는 것으로서 국회승인을 받은 490개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는 신규 20개항, 계속 466개항, 총 486개항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8차 계획에 대하여 연말에는 26.4%의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본다.

2. 개수사업

수축사업을 보충하는 사업으로써 수산업의 정세변화에 적응토록 탄력적으로 어항시설의 정비를 행하는 것으로써 제8차 어항정비계획기간내에 총 사업비가 2억엔을 넘고 12억엔이하의 920개항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신규 107개항, 계속 775

3. 국부개량사업

어항시설의 계획보강이나 국부적인 개량 또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써 어항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예산보조사업으로써 1987년도부터 시작한 어항내의 유어선 등 어선이용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를 행하는 '어항이용조정사업'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8차 어항정비계획에서는 1개 어항에 대한 총 사업비가 2억엔이하의 것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금년도 신규 283개항, 계속 225개항, 총 508개항이 실시되고 있다. 제8차 계획에 대하여 금년도의 진척률은 28.9%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말로 83.6% 日, 어항海岸사업 918억엔 투입

일본의 제4차 해안사업 5개년도 계획의 진척상황은 금년말로써 전체의 85.1%, 어항해안은 83.6%로 되어 있다.

금년도 일본의 해안사업 예산은 약 918억엔으로써 주로 해안환경, 공유지조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해안관리자로부터의 요청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5개년계획의 최종년도인 1990년도에는 계획사업을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災害복구에 5億 2,300萬엔 재해발생적어

재해복구사업은 원칙적으로 1차년도에 30%, 2차년도에 80%, 3차년도에 100%의 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년에는 당해년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를 낮게 책정하고 당해 재해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보정예산 등으로 대응해나가는 경향으로, 진도도 1차년도에 85%, 2차년도까지 95%의 매우 높은 속도로 복구가 되고 있다.

금년도의 어항관계 재해 복구사업예산은 5억 2,300만엔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비 42.7%로 되어 있다.

전년비 당초 예산이 대폭 낮은 것은 1987년 재해 및 1988년 재해복구가 전년도까지 보정예산 등으로 그 대부분이 종료되었고, 또한 1988년도 재해가 비교적 평년에 비해 적은 탓이다.

漁港을 마리노베이션 據點으로 開發

일본은 일반국민이나 각 산업분야에서 해양을 향해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으므로 어촌, 어업기지, 연안해역은 단순한 어업자의 산업장이라는 면보다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민이 풍부한 자연에 친밀해지며 해양레크레이션으로 즐기는 장소로 되고 있어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여 어업자와 지역주민, 도시주민과의 접촉할 수 있는 어항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마리노베이션거점 어항어촌 정비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마리노베이션 거점어항어촌 통합정비사업은 수산청의 1990년도 예산요구사항의 중점사항으로 보고 있다.

어정부기획과와 어항부기획과가 창구가되어 이구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마리노베이션구상의 기본계획을 책정한 지역에 있어 어항정비, 어항해안정비, 연정사업(沿整事業), 새연안구조개선사업의 실시 중에서 지역주민이 바다와 어촌에 친근감을 갖도록 시설을 정비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각각의 지역의 실상, 특성에 따라 '마리노베이션 거점어항어촌 통합정비계획'을 책정하여 여기에 따라 각종 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항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어항시설로서 녹지기능과 친수기능(親水機能)을 가진 방파제·호안·물과 푸르름을 가까이 하는 보행자·자전차 전용도로 등 일반주민에 대한 쾌적한 시설을 설치한다.

어항환경의 정비에서는 낚시터, 인공모래밭, 캠프장, 이벤트광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또 집락환경의 정비에서는 타지

역의 사람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역사적·문화적 시설의 보전·수복(修復)을 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어항해안사업에서는 해안경관과 조화된 해안보전시설 낚시나 바위 등 놀수있는 시설·수산전시시설 등의 용지정비를 행한다.

한편 연안정비사업에서는 증양식장, 중간육성시설 등 새연구사업(沿構事業)에서는 종묘생산시설, 축양시설 등을 정비한다.

10月26日 日本 第41回 全國漁港大會

지혜모아 特色 있는 大會못토

오는 10월 26일에 靜岡에서 제 41회 전국어항대회를 개최한다.

일본 어항계는 작년은 어항법의 일부개정과 전국어항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가 되었으며, 금년은 수산청 어항부가 창설 30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어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업도 해양레저를 결들인 질의 변화를 갖는 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면을 감안할때 이번 어항대회는 21세기를 향한 어업전개를 꾀함에 있어 의의가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최縣인 靜岡에서는 縣, 靜岡市, 縣漁港協會가 협력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다.

대회는 靜岡市 靜岡産業飯에서 열리며 대회에는 그 지방과 전국의 어항, 어업관계자 3천2백명 정도의 참가가 예상된다.

또 縣民에게 어업의 동향을 알리기 위하여 1백명 정도의 일반인 참가도 계획하고 있다.

어항대회 종료후 28일까지 참석자는 6개반으로 나누어 福田灣을 비롯하여 6개항을 시찰할 계획이다. ㉠

